

요약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① 인구구조 변화, ② 디지털화, ③ 위험의 진화 등 3가지 환경변화 측면에서 인적자원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했음
 - 국내 보험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적자원 고도화임
- 첫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1인 고령자 가구와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신탁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치매 등의 이유로 자산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탁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편, 사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상속 분쟁인데, 유언신탁이 사전에 상속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둘째,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적 역량과 함께 보험산업 관련 비즈니스 지식도 겸비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두 가지 역량을 모두 보유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또는 보험산업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 육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셋째, 새로운 위험의 경우 사고 통계에 기반을 둔 경험적 방법만으로는 시장 진출 및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공학이나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함
 -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계리·수학·통계학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학이나 다른 자연과학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음



1. 검토배경

○ 보험산업 회계연도 변경이 있었던 2013년을 기준으로 전후기간의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2013년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 동안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었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보험료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7.2%에서 0.7%로, 연평균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 이하 'ROA')은 0.9%에서 0.4%로 하락하였음
- 손해보험산업은 보험료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12.7%에서 5.0%로, 연평균 ROA는 2.0%에서 1.1%로 하락하였음

〈표 1〉 보험산업의 보험료수입 증가율과 ROA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료수입 증가율 (연평균)	2002년~2011년	2015년~2020년	2002년~2011년	2015년~2020년
	7.2	0.7	12.7	5.0
ROA (연평균)	2002년~2012년	2015년~2020년	2002년~2012년	2015년~2020년
	0.9	0.4	2.0	1.1

주: 1) 보험료 증가율: 2012년 농협은행의 시장진입, 2013년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2012년~2014년 수치는 제외함

2) ROA=(당기순이익/기중자산)×100, 기중자산=(기초자산+기말자산)/2, 2013년 회계연도 변경으로 2013년~2014년 수치는 제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하는 장기적인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는 비단 보험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한국 경제의 성장 및 고도화와 관련해서도 과거 고(高)성장 시대의 발전전략과는 차별적인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¹⁾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인적자원(Human resources) 고도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²⁾

-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적자원 고도화 방향을 ① 인구구조 변화, ② 디지털화, ③ 위험의 진화 등 3가지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함

1) 김세직(2021), 『모방과 창조』, 브라이트; 이정동(2017) 『축적의 길』, 지식노마드

2) 김세직(2021)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유용했던 인적자본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인적자본 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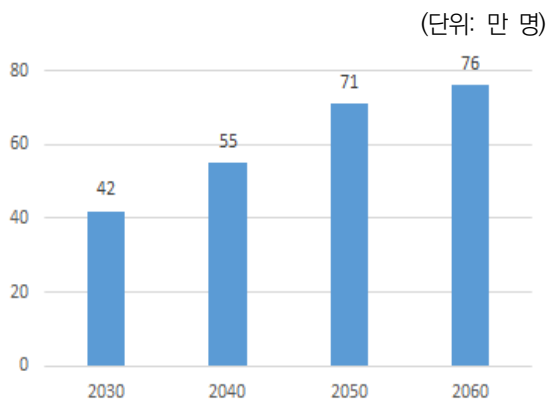


2. 인구구조 변화 관련 인적자원 고도화

○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운데 본보고서에서는 다음 2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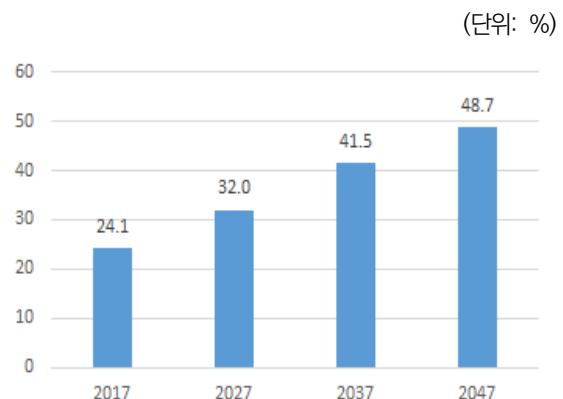
- 첫째,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망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206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사망자 수가 2030년 약 42만 명에서 2060년 약 76만 명으로 증가하게 됨
- 둘째,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47년 37.3%로 증가하게 됨
 - 그리고 1인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017년 24.1%에서 2047년 48.7%로 증가하게 됨

〈그림 1〉 사망자 수 추계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그림 2〉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중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 향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신탁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사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상속 분쟁인데, 유언신탁이 사전에 상속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한 1994년 이후 상속 분쟁이 급증하였고, 이 무렵부터 유언신탁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했음³⁾
- 한편,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치매 등의 이유로 자산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탁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3) 신탁 관련 일본 사례는 “배정식·박현정·신유라·류미주·이창호(2019), 『신탁의 시대가 온다: 100세 시대의 메가트렌드』, 타커스”에서 인용함

- 일본은 2006년 전문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도입하였음
- 도입 초기에는 친족 후견인이 72.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인 후견인이 자금 유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점차 전문 후견인을 선호하게 되었음

○ 향후 신탁수요에 대응하여 신탁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 육성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제고 방향 가운데 하나가 보험과 신탁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양성이 될 수 있음



3. 디지털화 관련 인적자원 고도화

○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기업 조직 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력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임

-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관련하여 과거에 제기되었던 질문이 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꼭 필요한가?”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중요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떤 인력을 채용해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로 고민의 내용이 바뀌었음

○ 데이븐포트(2014)는 훌륭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자질로 다음 5가지를 제시하였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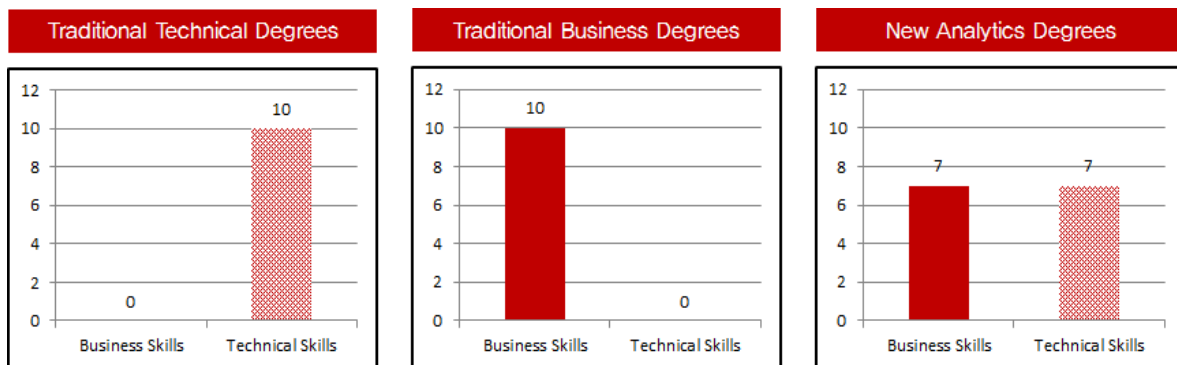
- 첫째,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파이선, 하이브, 피그, 자바 같은 스크립팅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하둡과 맵리듀스 등에도 익숙해야 함
- 둘째, 데이터 분석 작업을 위한 과학자적인 적성과 태도가 필요함
 - 여기서 과학자적 적성이란 분석을 계획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과학자적 태도란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함
- 셋째,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법론을 포함하여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비정형 데이터 분석 관련 역량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넷째,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사업과 관련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줌
- 다섯째,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가까이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돕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4) Thomas, H. Davenport(2014), *Big Data @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현행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훌륭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한계가 있음

- 전산·통계학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공하나, 비즈니스 역량 제고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반면, 경영학과에서는 비즈니스 지식을 갖추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공하지만,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적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그림 3〉 전통적인 학과의 프로그램 vs. 데이터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자료: Bill Franks(2014), *The Analytics Revolution*, Wiley

○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적 역량도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산업 관련 비즈니스 역량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 위험의 진화 관련 인적자원 고도화

○ 국내 보험산업은 그 동안 사망, 건강, 자동차 관련 위험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향후에는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리스크처럼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위험으로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위험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고 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어 있지 않아 경험적 방법에 의한 보험료 산출이나 언더라이팅만으로는 적극적 인수가 어렵다는 점임

○ 독일 뮌헨크리는 사후 경험적 방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사 내에 과학연구 부서(Scientific research unit)를 신설하여 이론에 근거한 사전 위험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였음⁵⁾

5) Christopher Kopper, C. (2017), "From Actuaries to Scientific Research: The Evolution of Risk Assessments at the Munich

- 1960년경 제트기가 민간 항공 산업에 도입되었을 때, 뮤니크리는 항공분야 공학자를 고용하여 위험평가에 공학 지식을 활용하였음
 - 이를 통해 경쟁자인 스위스리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었음
- 1968년에는 핵물리학자를 고용해서 그의 도움으로 원자력 사고 관련 추정최대손실(Probable Maximum Loss, 이하 'PML')의 새로운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음
 - 보다 신뢰성 있는 PML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계 관련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공학 지식도 필요했기 때문임
- 한편,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해외시장의 자연재해 위험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학자와 지질학자를 고용했음
 - 1960년대까지 뮤니크리의 언더라이팅 원칙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주요시장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위험을 마냥 제외할 수는 없었음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보험산업도 새로운 위험으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공학이나 자연과학(기상학, 지질학 등)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계리·수학·통계학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학이나 다른 자연과학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음



5. 맺음말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① 인구구조 변화, ② 디지털화, ③ 위험의 진화 등 3가지 환경변화 측면에서 인적자원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했음
 - 첫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1인 고령자 가구와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신탁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적 역량과 함께 보험산업 관련 비즈니스 지식도 겸비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새로운 위험의 경우 사고 통계에 기반을 둔 경험적 방법만으로는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공학이나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함

Re” in *Highlights on Reinsurance History*, edited by André Straus and Leonardo Caruana de las Cagigas, P.I.E. Peter Lang

-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안별로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공학이나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해 보험이론+지질학 협동과정, 보험이론+공학 협동과정 등의 학과 간 협동과정 개발을 생각해볼 수 있음